

김현 비평 연구

— 문학의 자율성 테제를 중심으로 —

정 미 선*

〈차 례〉

1. 서론
2.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
3. 문학적 양가주망: 순수/참여 사이
4. 정신의 리버털리즘의 의의와 한계
5. 결론

1. 서 론

본고의 목적은 김현의 비평적 시각이 갖는 의미망을 ‘문학의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그의 비평적 관점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평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김현은 1962년 『자유문학』에 발표한 「나르시스 시론-시와 악의 문제」로 등단하였으며, 김현의 비평적 실천은 마지막 저서로 출판된 1990년대 『시칠리아의 암소』와 그 해 5월 27일 발표된 「뜨거운 상징을 찾으며」-팔봉비평문학상 수상 소감」을 끝으로 약 30년에 달하는 시기적 스펙트럼을 갖는다.¹⁾ 주지하듯이 그가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김현 비평의 자료 목록은 『김현문학전집』 1~16권(문학과지성사, 1991~1993) 참

당대의 비평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의미심장한 것이다. 문학적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1962년 최초의 한글세대라는 자기정위를 바탕으로 4·19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산문시대』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며, 1968년 ‘68동인’으로서의 전신을 거쳐 1970년 계간 『문학과지성』을 창간한다. 백낙청을 위시하여 1966년 만들어진 『창작과비평』과 더불어 창비계열과 문지계열이 당대 문학 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위상을 고려한다면, 김현 비평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숙고해볼 만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김현은 『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1978)와 『프랑스 비평사: 현대편』(1981) 및 『프랑스 비평사: 근대편』(1983) 등을 쓴 불문학자이자 문학이론가로서, 『김현 예술 기행』(1976)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술 평론가이자 에세이스트로서, 다방면의 방대한 독서 흔적들과 글쓰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적 이력이 갖는 지형도의 다층성이 두드러진다.

문제는 바로 위와 같은 점에서 김현 비평이 갖는 해석적 구심점을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현 비평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들은 제각각 과편적인 방식으로 김현 비평을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김현 비평 연구사에 결부된 다음과 같은 논점들은 이러한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1)이념적 층위에서 김현을 순수문학의 옹호자로 규정짓고 이를 비판하는 시각, 2)김현 실제 비평의 편린들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학론들이 갖는 논리적 모순과 일관성의 부재를 문제 삼는 비판적 시각, 3)김현 실제 비평을 인상주의적·주관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 4)김현의 문단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 5)한국문학에 대한 서구 문학이론의 무차별적 대입을 비판하는 시각, 6)김현이 갖는 문학사적 위치와 업적에 대한 긍정적 시

조 이하 원문 인용은 모두 위의 저서를 출처로 두되(『전집』으로 표기), 발표 및 출간된 년도와 해당 서지 사항을 병기한다.

각, 7)문학사가로서 김현의 문학사 기술 방법론에 대한 긍정적 시각, 8) 4·19세대로서의 김현과 그 새로움에 대한 긍정적 시각, 9)김현 비평의 방법론인 공감의 비평과 소통 의식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²⁾

본고는 이 지점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김현의 비평적 시각이 위치 혹은 발원하는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해석적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주목할 만한 논점은 김현 비평의 스펙트럼 속에서 상당히 분명한 어조로 반복되고 있는 ‘문학의 자율성’ 테제이다. 김현의 문학에 대한 인식에서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옹호는 김현 비평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80년 광주 전후, 그리고 김현 비평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와 옹호하는 논자 모두에게 있어 핵심 어휘로 인준되고 있다.³⁾ 그렇다면 문제는 김현의 비평적 시각과 문학의 자율성 논향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에 있을 것이다. 본고는 특히 그가 위치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깊이 천착하였던 김현의 탐색이 문학의 자율성 테제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그의 핵심적 비평 어휘들을 생산해낸다는 전제 하에, 위 키워드를 바탕으로 김현 비평의 토

2) 김현 비평 연구에 대한 진단과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이승은, 「김현의 독서와 비평적 실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및 박민규, 「김현 비평의 공과」,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학술대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8 참조. 이들 논문은 기존까지 진행된 김현 비평 연구의 성과와 한계 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3) 오태호, 「김현비평에 나타난 “문학주의적 특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53, 우리어문학회, 2015 참조. 이 논문은 김현 비평의 포괄적 키워드로 ‘문학주의’를 추출하면서, 김현 비평의 문학주의적 면모에 대한 연구들(구모룡, 이명원, 한래희, 한보성)이 갖는 시각의 등차를 정리한다. 그러나 본고는 문학주의라는 문학에 대한 김현의 관점을 당대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대면하게 된 문학과 사회라는 논점, 즉 문학사회학적 테제와의 연관선상 바깥에서 구체적인 실제 비평의 논지로서만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대가 되는 기본적인 인식 양상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문학사회학』(1983)을 기본 텍스트로 하되 이와 연관된 김현의 기본적인 비평적 시각이 드러나는 글들을 대상 텍스트로 삼는다. 이때 본고는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단지 믿음의 영역에 회부되는 자명한 의제라기보다 “문학과 현실의 관계”⁴⁾라는 문학사회학적 탐구의 테제로서 독해될 때 어떠한 논의점들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하고자 한다.

2.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는 특히 비평가 김현이 위치하고 있는 시대적 맥락에서 일종의 에피스테메에 가까웠을 것이다. 비평적 자아로서의 김현이 위치하고 있는 시대는 특히 현격한 변동기로서, 1950년대 전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조국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를 기치로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근대화가 사회문화적 저변을 재편하던 시기였으며 동시에 억압되어야 했던 사회적 모순들이 4·19와 저 80년 광주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분출한 문제적 시대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70~80년대 문학장에서 문제시되었던 명제는 당대의 모순에 대한 문학의 대응 방식이라는 포괄적 화두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역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문학인으로서의 김현의 비평적 관심 또한 ‘문학과 사회’라는 테제로부터 유리될 수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문학중심주의, 자유주의 문학, 모더니즘적 자율성, 문학주의 등의 다양한 술어로서 명명⁵⁾되는 김현 비평의 시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4) 백지은, 「1960년대 문학적 언어관의 지형-순수/참여 논쟁의 결과에 드러난 1960년대적 ‘문학성’의 양상」,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258쪽.

5) 위의 글, 91~93쪽 참조.

미리 술어들을 전제하는 것 이전에 그 토대로서 비평적 시각이 발원하는 기초적 지점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문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론적 탐구로 응집되는 김현의 『문학사회학』⁶⁾을 바탕으로,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에 대한 김현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김현이 강조한 4·19세대의 자의식과 상상 체계의 위기라는 논점이 당대의 문학사회학적 테제로서 어떻게 연역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김현의 문학사회학 서장에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문학의 자율성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문학의 자율성은 특정한 문학의 이념형에 포획되지 않는, 근대 이후 문학이라는 장르가 성립하게 되는 문화적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사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근대 사회 이후,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는 문학과 사회의 관계가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조금 과감하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문제로서 제기된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화적 사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중략) 책은 팔려야 하는 법이므로 완전히 독자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작가는 눈에 보이는 파트롱에 대해서보다는 상대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 자유는 자기의 글의 내용과 형식을 자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으며, 사회에 대해 문학적 발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유였다. 그 자유는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⁷⁾

위 인용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듯이,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는 ‘근대 사회 이후부터’의 예술에게 부여되는 필연성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6)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3(『전집』 1, 196~353쪽).

7) 위의 글, 196~197쪽.

인식은 문학과 사회의 관계가 ‘처음부터 문제로서 제기’되는 전제에 문학의 자율성 개념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자율성 개념이 한국문학사에서 호명될 때에는 그것이 논자마다 문학의 독자적 영역 확보, 문학 위상의 격상, 문학의 고립, 문학 이상주의, 체제옹호적인 문학 그리고 ‘문학을 위한 문학’과 대구되는 ‘문학은 사회적 산물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표징으로서만 규정되었던 것⁸⁾의 맥락에는 문학사회학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었던 1930년대와 1970년대가 갖는 한국근대사의 특수성과 문학이라는 장르의 사회적 위치가 겹쳐져 얽혀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선의 등차와 문학의 자율성이 연역되는 지점 이전에, 우선적으로 문화적 사실로서의 문학의 자율성과 문학이라는 제도의 형성 속에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탐구되어 왔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김현은 한국에서의 문학사회학과 서양에서의 문학사회학을 살피면서 문학과 사회의 논제에 대한 관점들을 일별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특히 그가 중요하게 다루는 문학사회학의 계보로서 루카치와 골드만, 아도르노 그리고 바흐친이 두드러진다. 이들 논자들의 문학사회학적 논점들을 해석하는 가운데 루카치와 골드만의 논의에서 김현이 발견하는 것은 장르의 사회학이라는 문학과 사회의 상동 관계이다. 그는 루카치의 소설론에서 고대 그리스의 정신사·사회사 및 세계관이 갖는 전체성의 이념에서 배태된 서사시의 문학과 서사시 이후 희랍적 총체성을 상실한 형이상학적 실향의 시대로서의 근대에서 배태되는 소설 장르라는 구분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루카치의 견해는 세계관의 유형학을 주장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체적 변모 지점들과 사회적 집단의식의 세계관이 다단하게 현상적으로 길항

8) 오영주, 「근대 주체 해체의 관점에서 본 문학의 자율성 연구-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상명대학교, 2010, 2쪽.

하면서 시대적으로 문학의 형상들을 빚어낸다는 인식으로 포괄된다. 김현은 이러한 루카치와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적 작업에서 소설의 사회학, 즉 특정한 문학 양식(style)들을 배태시키는 특정한 사회와 의식의 문제를 읽어내고 있다.

이렇듯 김현이 루카치와 골드만에게서 소설의 사회학을 본다면, 아도르노에게서 읽어내는 것은 문학이 사회 속에서 빚어내는 효과의 논제이다. 아도르노는 예술 작품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 개념 속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뜻한다고 함으로써 예술 작품의 존재론적 가치를 부정의 부정, 즉 끊임없는 부정으로 있는 ‘새로운 형태’에서 찾는다.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문학의 효과는 양가주망과 경향성의 개념을 내용으로서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본질을 예술적 형태로서 불드는 데 있다. 김현은 이러한 아도르노의 문학사회학적 논점을 한 사회적 본질이자 사회적 삶의 총체적 모습을 새로운 형태로서 전위적으로 포착하는 역설적 기능으로서의 예술로 읽는다.

바흐친을 통하여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폭은 더 넓어진다. 바흐친의 대화주의에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는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상호교섭한다. 언어 현상은 사회와 문학의 관계를 통어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다성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경제적 구성과 사회적 소통 그리고 언어적 상호 작용의 언표들과 언어의 문법적 형태들로서의 문학이 상호텍스트성의 조직 망으로 구상된다. 김현은 특히 바흐친 그룹의 공현이 대화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넓혀 문학 작품의 내면성을 확대시켰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김현이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에 대해 의식하게 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문학을 사회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문학이 어떤 형태로 제도화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반성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는 김현에 의해 좁게는 문학이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대중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문학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의 구조적 동형을 이해 및 설명하고, 그 밑바닥에서 작용하고 있는 작가의 세계관을 밝히는 것 그리고 사회 변혁의 중요한 인자로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것으로 인식된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전범위성은 김현에 의해 ‘문학적 사실’에 대한 송신자-전언-수신자의 구조로서 작가의 사회학, 작품의 사회학, 독자의 사회학이라는 세 변향을 만들어낸다.⁹⁾

또한 김현이 논급하는 문학사회학의 상기 구조를 지탱하는 인식에 선행하는 것은 문학과 사회라는 각각의 논항이 갖는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루카치와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문학과 사회라는 논항은 시대적 맥락과 변인에 의해 변화를 겪는다. 특히 문학은 사회와 계급들의 세계관 그리고 내면화된 무의식 속에서 문학 양식들 혹은 장르들로 끊임없이 변화함으로써 사회와 긴항 관계를 맺는다. 이렇듯 ‘당대상’은 김현에게 있어서도 문학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까닭임과 동시에 김현의 문학사회학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논제이기도 했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사회에 대한 문학적 발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유였던 것이다. 이것은 김현에게 있어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학-사회 간의 ‘테제’로서 갈음할 수 없는 ‘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학사회학을 다룬 많은 글들에서 이러한 논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마르크시즘과 문학사회학」을 보면, 정통적 마르크시즘을 재해석하는 골드만과 아도르노, 마르쿠제의 작업에서 그는 “많은 문

9)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3(『전집』 1, 301~303쪽). 특히 문학사회학의 조건과 문학사회학의 구조 부분 참조.

학사회학자들이 결국은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삼는다.¹⁰⁾ 이때 김현의 논점에서 예술의 자율성 개념이 언제나 문학사회학과의 상관성 속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이 맥락에서의 ‘예술의 자율성’ 개념이 순수문학의 이념태로 곧바로 연역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김현은 독자의 사회학에서 형성되는 역사 속에서의 작품의 동적 얼굴을 매개하는 기초적 수용자로서의 비평가와, 작가의 사회학에서 문학세대의 생성과 변화의 맥락을 발견하는 자로서의 비평가, 작품의 사회학에서 문학적 사실이라는 항상 변증법적으로 사회에 대한 직간접적 성찰을 담고 있는 특수한 두께를 해석해내는 비평가라는 당대 문학비평의 세 문학사회학적 탐구 영역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 김현이 가장 천착했던 탐구 영역은 작가의 사회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대의 문학사회학적 테제로서 김현이 제시한 것은 ‘4·19세대’라는 세대론적 자의식¹¹⁾이다. 그는 상당히 빈번하게 여러 저작들 속에서 4·19세대로서 자신을 위치지움으로써 한국의 당대 현실과 역사에 대한 깊은 연루감과 책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 시대와 환경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의 노력은 그의 시대나 환경 속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꿈이 제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꿈이나 동경이 제도와 관계없이

10) 김현, 「마르크시즘과 문학사회학」, 이홍구 편, 『마르크시즘 100년』, 문학과지성사, 1984(『전집』 11, 90~114쪽) 참조.

11) 이러한 4·19세대로서의 자기 정위는 김현의 비평적 실천에 녹아들어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명료화된다. “내 육체적 나이는 늙었지만 내 정신의 나이는 언제나 1960년 18세에 멈춰 있었다. 나는 거의 언제나 4·19 세대로서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내 나이는 1960년 이후 한 살도 더 먹지 않았다. 그것은 쓸쓸한 인식이지만 즐거운 인식이기도 하다.” 김현,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88(『전집』 7, 13쪽).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 갈등의 오랜 축적의 결과이다.¹²⁾

위의 인용문에서는 특히 시대와 환경이라는 제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이라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김현이 이러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은 아이러니한 구석이 있다. 그 까닭은 김현이 속한 4·19세대(한글세대)가 기존 세대와의 단절을 피하면서 문학 장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세대론에 따르면 1960년대는 순수문학과 참여문학 및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이분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상상 체계의 위기’가 발생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김현의 문제의식은 문학사회학적 질문: 문학 세대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으로서의 사회·경제·정치적 현실과 당대성 그리고 그러한 작가들이 생산해내는 문학과 사회 간의 관계로 향한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흔히 문학에 역점을 두어, 문학을 위한 문학만을 주장하는 경향과, 사회에 역점을 두어 인간·사회를 위한 문학만을 주장하는 경향으로 크게 나뉘어 격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19세기의 프랑스 문학이며, 한국에서의 순수 문학/참여 문학의 가짜 대립이다. 순수 문학이 문학의 형식적·탈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면, 참여 문학은 문학의 공리적·사회적 성격을 강조한다. 전자가 형식 중심이라면, 후자는 내용 중심이다. 그 대립은 그러나 가짜 대립이다. 문학은 그것이 제작되어 판매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상이며,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 기구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후에서부터 문학의 그 이중적 성격은 분리할 수 없는, 이중적이며 단일한 성격이다.¹³⁾

12)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3(『전집』 1, 200쪽).

13) 위의 글, 198쪽.

김현에게 4·19세대라는 세대론적 전략은 1960년대라는 당대성이 갖는 ‘상상 체계의 위기’를 기존의 문학사회학적 입론들에서 파생된 문학 개념이 포섭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비평의 가능성」¹⁴⁾에서 55년대 비평가들과 65년대 비평가들의 경우를 논의하면서 구호 비평의 두 경향으로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극단화된 경향을 비판적으로 논급하고 있다. 첫째로는 사회학적 방향의 극으로 움직이면 그곳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로 무장된 프롤레타리아 봉기 고취의 문학 비평과 부딪치며, 둘째로는 미학적 방향의 극으로 움직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한 모더니즘의 와중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김현이 경계하는 것은 이렇듯 도식성과 작위성을 문학의 사회학이라는 단선적 이해에서 신성시하게 되는 비평의 경향이다. 위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김현의 문학 개념은 계속해서 순수/참여라는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둘러싼 이분법 사이를 맴돈다.

김현이 당대의 문학 장에서 한국 사회의 주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민중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당대 문학 담론에서 문제시되었던 순수와 참여, 전통단절론, 민족문학논쟁, 민중문학론, 세대논쟁 등에 끊임 없이 연루되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현의 비평적 특수성은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거리두기를 통하여 생성된다. 이 시기에는 순수참여논쟁 여러 가지 논쟁들이 겨냥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문학과 사회라는 두 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상이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3. 문학적 양가주망: 순수/참여 사이

앞선 장에서는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에 대한 김현의 인식과 함께

14) 김현, 「한국 비평의 가능성」, 『68 문학』, 1968(『전집』 2, 95~109쪽).

4·19세대의 자의식과 상상 체계의 위기라는 논점이 당대의 문학사회학적 테제로서 어떻게 연역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지점에서 문학의 자율성 개념은 김현의 비평적 관점에 있어서 문화적 사실이자 특정한 이념태에 포섭되지 않는 근대 이후의 문학이 갖는 공통적 논제로서 자리하고 있다. 문학이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특정한 문학 이념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학 이념들을 ‘가능케 하는’ 장으로서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사회학과 상관계 속에서도 문학의 자율성 개념을 해석하는 이해 방식이 김현의 실제 내재적 비평 논리로 이행할 때, 그것이 4·19세대라는 세대론적 전략과 전세대와의 단절성에 상응하는 유효한 비평적 논점들을 생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의 지점들이 남아있으며,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장에서는 김현의 비평적 자기 정위가 실제 당대의 문학 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변형되는지에 대해 주로 문학적 양기주망과 순수/참여의 대립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장 먼저 그가 1950년대 전후문학과와 경계 지점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문제들에 주목했음은 동시에 한국 문단의 문제점들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우선적으로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가 김현에게 있어서 당연한 문제이자 실천적인 의제로서 드러나는 부분은 그가 ‘문학사’에 관심을 갖고 또 기술한다는 점에서 구체화된다. 주지하듯이 문학사란 문학과 사회라는 공간축의 논제에 더하여 역사라는 시간축이 덧대어지는 해석의 작업이다. 문학사 서술에 대한 천착(이것의 결실은 김윤식과 공저한 『한국문학사』(1973)로 드러난다¹⁵⁾)은 문학사가 문학과 역사의 논항을

15) 김윤식과 김현이 공저한 『한국문학사』는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대로 끌어올림으로써 국수주의적 경향성에 매몰되는 시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본고의 논점은 문학사서술에 대한 메타비평에 있지 않으므로 문학사 기술 방법론을 통해 문학에 대한 당대의 실증주의적 경향성을 비판한 논지만 논의한다.

연결 짓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현은 여기에서 문학사 기술과 또한 당대의 문학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의 실증주의적 경향을 비판한다.¹⁶⁾ 특히 김현은 실증주의적으로 문학사를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에 깔린 ‘작품 속에 객관적인 것이 있다’는 믿음이 갖는 순응성(시대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정신적 파시즘의 길)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이 시대의 병폐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식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패배주의와 샤머니즘에서 연유하는 정신적 복합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패배주의는 한국 현실의 후진성과 분단된 한국 현실의 기이성 때문에 얻어진 허무주의의 한 측면이다. 그것은 문화,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서 한국인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체이다. 정신의 샤머니즘은 심리적 패배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의 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식민지 인텔리에게서 그 굴욕적인 면모를 노출한 이 정신의 샤머니즘은 그것이 객관적 분석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정신의 파시즘화에 짧은 지름길을 제공한다.¹⁷⁾

또한 그는 문단계의 실증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이러한 정신의 샤머니즘과 정신적 파시즘의 길은 당대 문학 장에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었던 두 가지 계속된 대립, 즉 순수와 참여 사이의 대립과도 연역된다.

16)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서언,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전집』 16, 57쪽) 참조.

17) 김현, 『『문학과지성』 창간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 1970년 가을호(『전집』 16, 49쪽).

완성된 윤리가 불가능하듯이 완성된 예술도 불가능하다. 예술이나 윤리성은 작품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가가 그가 속한 사회의 배분 원칙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기가 관찰한 것을 반성하여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것이다. 어떤 작가에게 있어서의 윤리성이나 예술성이란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그가 속한 사회와, 그 사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금제들을 관찰하고 반성하고 있는가와 동의어이다.¹⁸⁾

이 인용문은 비판적 지성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술성과 윤리성을 연역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예술성이 순수문학을, 윤리성이 참여문학으로 양분된다는 점에서 순수와 참여 사이에 대한 단서를 준다. 그리고 이것은 아래의 내용형식논쟁의 논점을 상기시키는 인용문에서도 드러난다. 김현은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장에서, 문학성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다.

문학의 기원 문제나, 텍스트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착각과 같은 가짜 문학적 문제 외에, 문학 작품을 통일적으로 인지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가짜 주장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문학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이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문학 작품에 대해 그것의 내용은 좋은데 형식이 나쁘다든가, 형식은 좋은데 내용은 나쁘다라는 식의 말을 자주 듣는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가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가 하는 해괴한 문제로 탈바꿈한다. 문학은 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야말로 문학의 생명이라고 한편에서 말하면, 문학은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중략) 그 문제야말로 그러나 가짜 문제이다. 내용은 형식과, 형식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 주장을 절충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은 좋은 형식과 좋은 내용의 결합을 뜻하는 게 아니

18) 김현,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전집』 2, 169~170쪽).

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말한다면 그 자체로 좋고 나쁜 내용이나 형식은 없다.¹⁹⁾

그렇지만 김현의 논의 속에서 참여문학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순수문학에 대한 비판 역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는 계속해서 당대의 문학 장을 이분하는 순수와 참여의 대립을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된 넓은 의미의 문학의 자율성 개념을 통해 해체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폐쇄된 상황에서 문학 외적인 압력만을 받았을 때 문학을 지키려고 애를 쓴 노력이 순수문학이라는 토속적인 문학을 산출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순수문학의 문제는 그것이 갖는 밀폐성에 의한 것으로 진단된다.

그 세 범주란 문화적 초월주의, 민중적 전망주의, 분석적 해체주의이다. 문화적 초월주의란 문학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믿는 세계관을 뜻하며, 민중적 전망주의란 문학이란 민중에 의한 세계 개조의 실천의 자리이며 도구이다라고 믿는 세계관을 뜻하며, 분석적 해체주의란 문학이 우리가 익히 아는 경험적 현실의 구조 뒤에 숨어 있는, 안 보이는 현실의 구조를 밝히는 자리이다라고 믿는 세계관을 뜻한다. 같은 분석이지만, 문화적 초월주의에 있어서는 분석은 가치 판단이며, 민중적 전망주의에 있어서는 실천 행위이며, 분석적 해체주의에 있어서는 해체-구축이다. 작품은 물론 가치 판단을 가능케 하는 동적 존재이며, 실천 행위를 고취하는 움직임이며, 숨은 구조가 드러나는 자리이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적 해체주의는 상상 체계의 위기라는 당대성의 문학이 문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다시 비평적 장으로 가져오게 되는가에

19)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3(『전집』 1, 48-49쪽).

20) 김현, 「비평의 유형학을 향하여」, 『예술과 비평』, 1985년 봄호(『전집』 7, 233-234쪽).

대한 김현의 핵심적 논점이다. 그러나 앞선 인용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에서 ‘그 자체로 좋고 나쁜 내용이나 형식은 없다’. 김현이 비평가로서의 자신을 정위하는 관점인 분석적 해체주의는 문학에 대한 모델을 보여준다기보다 문학에 대한 비평의 모델을 정위하는 데에서 변별되는 논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은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인지, 그리하여 문학과 사회의 변증법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학의 무용성이 갖는 유용성’의 역설적 의미를 논점으로 하는 김현의 논의를 다시금 살펴봄으로써 일정부분 드러나게 된다.

남은 일생 내내 나에게 써먹지 못하는 문학은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어머니, 이제 나는 당신께 내 나름의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확실히 문학은 이제 권력에의 지름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 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중략)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²¹⁾

이 지점에서 김현은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의 문학사회학적 탐구로 되 돌아온다. 김현의 문학사회학 테제가 겨냥하는 지점이 순수와 참여 사이를 해체하는 방법론의 고안에 있었음은 그가 문학과 사회를 매개하는 ‘언어’라는 논제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김현은 언어를 “의식과 사물이 관계를 맺는 기호 체계”²²⁾로 간주할 때, 문학의 언어가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이 ‘언어로 된 현실’의 만듦과 그 방법화에 대한 고민에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은 문학의 예술적 측면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통해서야만 그 진실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언어가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학은 사회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그것은 정적인 함수 관계로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동적인 함수 관계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에 속한다. 말을 바꾸면 문학이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개인과 현실이 만나는 현장을 통해서이며, 그 현장은 구호와 선전문에 의해 고정화될 수 없는 것에 속하는 것이다. (중략) 이처럼 참여시와 순수시는 시의 양면성의 하나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현대시를 진심으로 걱정케 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시킨다. 그 중에서 가장 곤란한 것이 문학적 가치의 고정화 현상이다. 시대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고정화된 이데올로기는 한국시의 앞날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 뿐이다. 문학은 공리적인 측면과 예술적 측면의 상호 보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²³⁾

이에 따르면, 문학의 예술적 측면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인 산물로서의 언어’와 그 언어를 새롭게 재구하여 ‘언어적 현실’을 만드는

21)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과지성』 1975년 겨울호(『전집』 1, 49-50쪽).

22) 김현, 「분화 안 된 사고의 흔적」, 『서울신문』 1969.5.6(『전집』 15, 270쪽).

23) 김현, 「70년대의 한국 문학의 전망」, 『대학신문』 1970.4.13(『전집』 15, 279-280쪽).

문학의 동적인 함수 관계로부터 생산되는 효과 차원의 논제로 이해된다. 가령 그가 「성찰과 반성」²⁴⁾에서 ‘의식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강조하듯이 ‘문화적 결정화 작용’은 특정한 가치를 자연스럽고 올바른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당대성의 상상 체계를 의미하며, 「비판 문학론」²⁵⁾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문학은 이러한 풍속이나 현실을 방법의 틀을 가지고 언어로 만든 관념 행위라는 맥락에서 당대성과 연역된다. 이러한 김현의 인식 체계 속에서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가 당대성이라는 하나의 논쟁적 장에서 만날 때, 문학 혹은 사회라는 범주를 하나의 상수로서 전제한 채 문학사회학적 테제를 생산할 수 없으며 앞선 장에서 논급한 것처럼 최소한 작가의 사회학, 독자의 사회학, 작품의 사회학이라는 각 층위의 시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당대 문학의 언어를 재구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은 이러한 언어적 현실을 거꾸로 파헤쳐 들어가는 또 다른 관념 행위로서 비평을 위치시키고 있다.

나는 문학이 다양해야 하듯이, 문학에 대한 접근 또한 다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문학의 다양성은 획일적인 사고의 폭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이며, 문학 연구의 다양성 또한 그러하다. 문학 연구의 다양성은 문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생겨난 인위적인 것, 더 포괄적인 용어를 쓰자면 문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으며, 그러한 입증은 문학을 신비화시켜 문학을 물신화시키려는 노력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까발려 보여줄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문화적인 사실이 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문학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학 활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²⁶⁾

24) 김현, 「성찰과 반성」, 『문학과지성』 1979년 여름호(『전집』 4, 323쪽).

25) 김현, 「비판 문학론」, (미확인) 1979.8(『전집』 14, 211쪽).

주지하듯이 문학의 자율성은 근대 이래로 문학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로, 문학의 자율성은 모순적 테제다. 왜냐하면 ‘문학의 자율성’ 테제는 가장 원천적인 지점에서 아도르노 식의 표현대로 ‘예술이 자명성을 상실한 시대’에 생성되고 또 작동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사회학과 문학의 자율성이 상당히 모순된 개념들의 조합으로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학사회학』 서장에서 코제브를 인용하여 금반지의 비유로 인간의 삶이라는 전체성을 바탕으로 사회(금)와 문학(구멍)의 상호보완적 성격²⁶⁾을 강조하는 것은 김현의 문학관이자 문학과 사회에 대한 그의 관점을 대변하면서, 김현의 비평이 갖는 문학에 대한 역설적이고 ‘사이’적인 국면을 부각시킨다.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바로 그러한 더운 상징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멋진 말의 수사도 아니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시키는 힘있는 구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더운 상징이 되어 거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유발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수사는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 구호는 시들게 마련이지만, 뜨거운 상징은 비슷한 정황이 되풀이될 때마다 새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반응은 한결같은 것이 아니고 거의 매번 다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학은 그 어떤 예술보다도 더 뜨겁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되돌아봄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평입니다. 비평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반성적 행위입니다. 그 반성의 앞에 분석이 있으며, 그것의 뒤에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비평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목소리로 소리내는 것을 좋아하는 이 획일화의 시대에—놀라운 것은 그 획일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26) 김현, 「문예사회학에 대하여」, 『뿌리깊은 나무』, 1979년 7월호(『전집』 14, 181쪽).

27)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3(『전집』 1, 201쪽).

지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자기 목소리로 작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획일화에 제일 확실하게 온몸으로 버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²⁸⁾

4. 정신의 리버럴리즘의 의의와 한계

김현의 비평 의식은 ‘사이’의 존재에서 모색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과 사회 사이, 순수와 참여 사이에서 문학의 자율성은 모순된 방식으로, 양가적 의미를 갖는다. 김현은 문학의 자율성 테제 아래에서 실천하는 지성을 통해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했다. ‘뜨거운 상징’으로서의 문학, 그리고 획일화된 현실의 가치에 저항하는 문학과 획일화된 담론 형태 및 도식화에 저항하는 비평 양자는 보편에 매몰되지 않는 개인의 보편지향성이라는 어려운 틈새를 지향한다. 김현 비평의 키워드로 자리하는 ‘상상력’, ‘개인’, ‘자유’, ‘주관성’, ‘윤리’는 분명 보편이라기보다는 특수에 속한다.

그러나 특수는 어떻게 다시 보편을 지향하고 또 보편을 그려낼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 김현의 비평적 시각을 살펴보았을 때 두드러지는 문제는 그의 문제의식과 비평적 의제로 삼은 것이 사실상 문학관과 비평가로서의 태도에 관한 논제 차원에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적인 작품 해석의 방법론은 상당부분 공백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김현 비평이 갖는 한계 지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의 자율성을 문화적 사실로서 전제하고 순수와 참여 사이의

28) 김현, 「뜨거운 상징을 찾으며」, 『한국일보』, 1990년 5월 27일(『전집』 16, 125쪽).

존재를 모색하고자 했던 김현의 비평적 시각이 갖는 내재적 원리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한국현대문학의 비평사적 맥락이 결과론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의식’,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토대로 문학의 현실 참여를 강조한 창비 계열과 ‘감수성의 혁명’, ‘리버럴리즘과 상상력’을 통해서 미학적 탐구로서의 문학을 주장한 문지 계열로 양분되었던 것²⁹⁾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상일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두 계열은 문학의 기능성/문학의 존재성, 실천적 이론/이론적 실천, 민중적 전망/시민적 전망, 현실에의 몸담음/현실에의 반성적 질문과 같은 문학적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1970~80년대 비평사의 양면에서 담론적 실천의 중심점으로서 자리해왔다. 김현을 중심으로 한 문지 계열이 이러한 창비 계열과의 차별성을 전략적으로 유지하면서 창비의 현실주의 문학론에 맞서 자유주의 문학론을 표방하였으며, 그 결과로 당대 비평사의 구도가 두 계열 사이의 대립이라는 담론적 실천의 도그마에 갇혀버리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음³⁰⁾은 문학의 자율성을 쟁점으로 한 당대 비평사의 화두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바라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학의 자율성 테제가 갖는 양가성을 통해 문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성 자체를 통찰하는 시선과, 근대 사회에서 문학의 가능성과 전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는 김현 비평의 논제는 여전히 비평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제는 오늘날 문학과 사회 담론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으로, 이는 비평사적으로 김현의 비평에 대해 당대의 문학 장에서의 김현이 갖는 위상 뿐만 아니라 오늘날 김현의 비평으로부터 살필 수 있는 논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사유해야

29) 하상일은 이 논문에서 당대 비평사의 두 구도가 상징하는 키워드들을 추수한다.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비평문학』 27, 한국비평문학회, 2007, 246~247쪽 참조.

30) 위의 글, 같은 쪽.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근대 이래로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문화적 사실 속에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가 정형화된 단선적 맥락이 아닌 다차원의 변항들이 교차하는 장으로서 인식된다면, 김현이 위치했던 당대의 지평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변화된 지점에서 여전히 문학과 사회는 충분히 해명되어야 할 화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에서 김현의 비평이 갖는 의의는 오히려 90년대 이후의 비평사적 양상과 보다 친연성을 떨 지도 모른다. 가령 황중연은 “90년대 문학은 나름대로 정치적이다. 민족통일운동이나 민중해방운동 같은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지 않았을 뿐이지 개인과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과의 싸움을 수행했다. 일상, 신체, 욕망, 성, 가족, 생태 등의 테마를 다룬 90년대 시와 소설에서 바로 그 삶의 영역에 작동하는 권력을 의식하거나 그 권력에 대한 반란을 꿈꾸는 언어를 만나기란 극히 용이한 일이다”³¹⁾라고 논급하면서 ‘일상의 영역으로 정치적 의제가 전향되는’ 당대의 맥락을 지적한다.

또한 이광호는 “이제 가족, 성, 라이프스타일, 직업, 대중문화와 문화적 소비 등 비정치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영역들이 정치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공적인 범주에 간혀 있던 정치는 사적, 일상적, 문화적, 심미적 공간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치적 상상력은 생활의 공간에서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 세계의 패러다임 내에서의 다원성을 보장하고 억압의 영역을 줄이는 정치적 실천의 기획일 것이다”³²⁾라고 논급하면서 변화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가 갖는 변경 지점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한국 문학에 대해 ‘정치’를 이야기하는 양상은, 이른바 ‘거대 담론’의

31) 황중연, 「살아 있는 혼돈을 위하여」, 『문학동네』 29, 문학동네, 2001, 20쪽.

32) 이광호,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의 발견」,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 문학과지성사, 2006, 78~79쪽.

시기와 그 이후가 현저히 다르며, 대문자 정치에 대한 개입 혹은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담론들의 지형에서 이루어졌던 전 시기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는 ‘사생활의 발견에서 일상의 정치학’이라는 모토에 걸맞은 미시 정치에 관한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백지은³³⁾의 지적처럼, 김현 비평에서 그 내재적 원리로서 읽히는 논제로서 문학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해석과 그로 인한 문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 설정은 현재적 의미에서도 여전히 논의될 필요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근대 이래로 문학 개념은 문학의 자율성 테제가 갖는 양가적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영미 주지주의 계열 모더니즘에서 발생하여 주도적으로 인식되었던 예술의 자율성 개념은 김현의 비평적 관점에 의해 문학과 사회라는 논제에서 현실과 예술의 재통합이라는 가능성과 상상력 속에서 재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의 논의 전체는 김현 비평의 비평적 관점의 한 부분을 논급해보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될 수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김현 비평이 갖는 시대적 스펙트럼이 넓고 문학인으로서의 그의 면모의 다층성이 큰 만큼, 김현 비평의 실천적 면모와 이론적 면모 모두를 한 번에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고는 비평 각론을 대상 텍스트로 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김현의 비평가로서의 자아와 그것이 보여주는 비평적 시각이 어떠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

33) 백지은, 「“문학과 정치” 담론의 행방과 향방」, 『비평문학』 36, 한국비평문학회, 2010.

다. 특히 본고의 주요 초점으로 삼은 문학과 사회 및 문학의 자율성 개념은 1960~1980년대의 문학 장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킨 논제였으며, 또한 오늘날 당대의 맥락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논제로 자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를 일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주로 비평가 김현의 문학관 차원의 논제를 살펴본 만큼 본고가 갖는 한계 지점 또한 명확할 것이다. 먼저 첫째로 김현의 비평적 시각이 갖는 당대 사회에의 실천적 조응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논의의 근거를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바슐라르, 아도르노, 푸코, 지라르 등의 논지를 읽어나가는 그의 이론적 작업들과 그 궤적 또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김현의 문학적 자유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의 비평적 실천으로 제시되었던 실제 비평의 면모들과 견주어 그가 논의한 문학사회학적 테제의 세 분야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부 주제들을 발굴하고 탐색해나갔는지에 대해 그 구체적인 분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김현 비평의 술어들이 실제 비평에서 작동하는 적용의 실상을 살필 때, 문학의 자율성 개념을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 김현의 비평적 실천이 갖는 전체적 면모가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 현, 『김현문학전집』 1~16, 문학과지성사, 1991~1993.
 이광호,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 문학과지성사, 2006.
 김형수, 「김현 문학비평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승은, 「김현의 독서와 비평적 실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조영실, 「김현 문학비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래희, 「김현 비평 연구-독서행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곽상순, 「김현의 소설비평에 나타난 ‘자유’와 ‘진실’의 의미 연구-정신적 사멸니즘 및 심리적 패배주의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6, 국제어문학회, 2012.
- _____, 「계간 『문학과지성』이 1970년대 한국소설에 끼친 영향 연구-김현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 구모룡, 「김현의 비평세계-김현이라는 한국문학 비평」, 『작가세계』 12(2), 작가세계, 2000.
- 김태환, 「자율성 개념과 문학사회학」, 『문학과사회』 14(3), 문학과지성사, 2001.
- 박민규, 「김현 비평의 공과」,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학술대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8.
- 백지은, 「1960년대 문학적 언어관의 지형-순수/참여 논쟁의 결과에 드러난 1960년대적 ‘문학성’의 양상」,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 _____, 「“문학과 정치” 담론의 행방과 향방」, 『비평문학』 36, 한국비평문학회, 2010.
- 변광배, 「‘순수·참여문학’ 논쟁 재탐사-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52,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서은주, 「1960년대 4·19 세대의 비평의식과 서정주문」, 『한국문학연구』 4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 송희복, 「욕망의 뿌리와 폭력의 악순환-김현의 소설론」, 『오늘의 문예비평』 9, 오늘의 문예비평, 1996.
- 오영주, 「근대 주체 해체의 관점에서 본 문학의 자율성 연구-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상명대학교, 2010.
- 오태호, 「김현비평에 나타난 “문학주의적 특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53, 우리어문학회, 2015.

- 유성호, 「김현 비평의 맥락과 지향」, 『한국언어문화』 4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 임영봉, 「비평가 김현의 삶과 문학」, 『어문론집』 44, 중앙어문학회, 2010.
- 장경렬, 「김현, 그 ‘부재하는 현존, 현존하는 부재’ - 김현의 비평사적 위치」, 『문학과사회』 13(2), 문학과지성사, 2000.
- 정과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문학과사회』 13(2), 문학과지성사, 2000.
- 최강민, 「공감의 비평, 그 내적 모순」, 『우리문학연구』 23, 우리문학회, 2008.
-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비평문학』 27, 한국비평문학회, 2007.
- 한래희, 「김현 비평에 나타난 ‘비평의 유형학’의 변화와 그 함의」, 『한국학연구』 35,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4.
- _____, 「김현 중, 후기 비평에 나타난 비평 전략의 변화 양상」, 『우리어문연구』 50, 우리어문학회, 2014.
- 황종연, 「살아 있는 혼돈을 위하여」, 『문학동네』 29, 문학동네, 2001.

이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 1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김현 비평 연구

- 문학의 자율성 테제를 중심으로 -

정 미 선

문학의 자율성 개념은 김현 비평의 핵심 테제로, 문학사회학과 연관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일차적으로, 김현의 비평적 시각에서 문학의 자율성은 근대문학이라는 장르의 탄생에 원천 결부된 논제이자, 문화적 사실로서의 의미를 띤다. 이때 문학이 자율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김현의 강조는, 문학 이념들을 가능케 하는 당대성의 장(Field), 즉 문학적 담론의 실천 양상에 주목하게 한다. 김현이 관심하는 문학적 양가주망의 방법론은 문학/사회라는 각 범주를 상수로서 전제하는 당대 문학 장에서의 순수문학/참여문학의 대립 구도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김현 비평에서 문학의 자율성 테제는 사회의 산물로서의 언어와 언어적 현실의 조형으로서의 문학이 길항하는 양가성의 장을 의미한다. 김현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작가의 사회학과 독자의 사회학 그리고 작품의 사회학이라는 문학사회학의 세 탐구 영역을 제시하며, 문화적 결정화 작용을 거꾸로 파헤치는 행위를 비평가의 책무로 제시한다. 이처럼 문학의 자율성 개념을 해석하는 김현의 비평 논리는 순수나 참여라는 문학의 이데올로기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지속적인 통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평사적 의의를 갖는 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김현, 문학사회학, 문학의 자율성, 문학적 양가주망

<Abstract>

The meaning of Literary Autonomy in Kim Hyun's Criticism

Jeong, Mi-seon

As a core thesis of Kim Hyun's criticism, the concept of literary autonomy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s of literary sociology. literary autonomy is a topic that fundamentally associates with the birth of a genre called 'Modern Literature' and has a meaning as a cultural fact most of all. At this point, Kim Hyun's emphasis on the fact that literature has autonomy makes us pay attention to the field of contemporaneity, that is, practical aspects of literary discourses.

The methodology of literary engagement in which Kim Hyun takes interest makes him located in the antagonistic composition between pure and engagement literature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literature premising each of literature and society as a constant. The thesis on literary autonomy means the field of ambivalence between language as a product of the society and literature as a form of linguistic reality. By the medium of language, he suggests three inquiry domains of literary sociology, while explaining all the behaviors of inversely looking into cultural crystallization actions as one of critics' duties.

Overall, since Kim Hyun's critical logics i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literary autonomy requires a constant discern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society that cannot be reduced only by different literary ideologies such as purity and engagement, it can be regarded as a topic still having a

criticism-historical significance.

key words: Kim Hyun, Kim Hyun's Criticism, Autonomy of Literature, Literary Engagement, Literary Sociology